

# 한국초전도저온학회 회장후보 등록서류 [이력서]



인적사항	성명	최경달	생년월일	1962. 2. 12	
	소속	한국공학대학교(구 한국산업기술대)	직위	교수	
학력사항	학교명	입학년도	졸업년도	전공	학위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6	1993	전기공학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4	1986	전기공학	공학석사
	서울대학교	1980	1984	전기공학	공학사
경력사항 (최근사항부터 기재)	기간	근무처	부서/지위	담당업무	
	1998 ~ 현재	한국공대	에너지전기공학과/교수	교육	
	2009 ~ 2010	Univ. of Maryland	물리학과/방문교수	연구	
	1995 ~ 1996	일본사가국립대	전자공학과/방문연구원	연구	
	1993 ~ 1997	기초전력연구소	연구원	연구	
학회활동 (학회 사무국에 확인요망)	기간	역할		담당업무	
	2019.01 ~ 2022.12	부회장		응용기기부문 위원장	
	2019.01 ~ 2020.12	통합추진위원회 위원			
	2013.01 ~ 2017.11	학술위원장		학술대회 공동조직위원장	
	2011.01 ~ 2012.12	통합추진위원회 위원			
	2011.01 ~ 2015.12	MT24 유치위원회 위원		조직위원	
	2011.02 ~ 2011.08	글로벌프론티어사업 기획위원		초전도응용분야 기획	
	2005.01 ~ 2012.12	학술이사			
1998.08 ~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학회 회원				
기타 (연구,수상, 봉사활동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 ~ 2011 차세대초전도응용기기개발사업(21C 프론티어사업) 세부과제(초전도변압기)</li> <li>· 2004 ~ 2011 고온초전도 SMES 개발 위탁과제</li> <li>· 2005 ~ 2019 연례 초전도기초강좌</li> <li>· 2019 ~ 대한전기학회 초전도기기연구회 위원장</li> </ul>				

※ 이력서는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하시고 사진을 첨부합니다.

※ 이력서는 회원들에게 선거용 홍보물로 제공됩니다.

# 한국초전도저온학회 회장후보 등록서류 [소견서]

안녕하십니까?

통합 초전도저온학회 2대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한국공학대학교 최경달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초전도저온학회의 발전에 미력이나마 기여하고자 나섰습니다. 98년에 양 학회가 설립되고 20여 년만인 2020년 양 학회가 통합하여 초전도저온학회가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사태로 물리적으로는 통합하였으나, 회원 개개인 간의 융합을 도모할 기회를 갖지 못 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학회 학술대회를 오프라인으로 치르게 되어 그 동안의 갈등을 씻어 낼 수 있으리다 기대합니다.

차기회장으로 선출된다면, 저는 우리 학회의 내실을 다지고, 여섯 개 부문회 회원들의 화합을 다지게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우선 학회 내실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학회 논문지에 투고되는 논문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현재 SCOPUS로 지정돼 있는 논문을 유지하고자 고생하고 있는 편집위원회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문회별 워크샵 등을 활성화하고 부문회보다 더 작은 규모의 연구회 활동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다지겠습니다.

학회 내실에 중요한 다른 요소는 회원수입니다. 단기간에 회원을 늘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이 역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습니다. 회원수 증대는 학회의 장기 플랜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전기연구원과 표준연구원으로 이원화된 학회 사무국을 유지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 군데의 사무국으로 통합하여야 합니다. 강남역 인근에 있는 과총회관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데, 과총회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정회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회원 수를 늘리는 것과 기존 회원들을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회원 화합을 위해서 학회 본연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구회 등의 모임도 재정적인 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섯 개 부문 회원 전체가 모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 이사회의 인원만 해도 예순 분 이상이라 이사님들 개개인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사회 외에 여섯 부문이 함께 모이는 위원회 성격의 모임을 늘려 보겠습니다. 현재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교육·홍보위원회 등이 활동하고 있는데, 기존 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학생위원회 등 한두 모임을 추가하여 부문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학회 활동은 회원 여러분의 봉사에 기초한 것입니다. 학회 활동이 늘어난다는 건 회원들의 시간과 노력을 그만큼 많이 요구하는 일이 될 텐데, 가능한 한 회원들의 노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로 상충되는 이 두 가지 목표를 이루는 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으나, 여러분께 실망드리지 않는 회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견서는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합니다.

※ 소견서는 회원들에게 선거용 홍보물로 제공됩니다.